



한국압화박물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사계절 만난다

압화(押花)는 꽃·잎·줄기 등을 눌러서 말린 조형예술이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붓으로 그린 듯한 풍경화·정물화·추상화 등 회화는 물론이고 공예 작품, 생활소품에 알알이 박혀 있다. 한국압화박물관은 사계절 내내 압화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명소다. 체험교육관에서는 생활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미아리 점쟁이집 곶길에 피었습니다/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파주 인천 서부전선 능선마다 피었습니다/ 백목련꽃이 피었습니다/ 방배동 부자집 철책담 위로 피었습니다/...(중략)...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경북 도경 국기 계양대 바로 아래 피었습니다/ 그러나,/ 개마고원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영변 약산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은율광산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마천령산맥에 백두산 천지에/ 그렇지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무슨 꽃이 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 보았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통일된 나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 있는 황지우 시인의 '꽃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시에는 개나리·진달래·백목련·철쭉·라일락·유채·안개꽃·망초·수국·칸나·백일홍·해바라기·무궁화 등 온갖 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핀다. 예부터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말했듯이 봄이면 어디를 가든 눈 돌리는 곳마다 형형색색의 꽃 사태가 펼쳐진다.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

구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선 압화박물관 열었던 땅이 녹기가 무섭게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는 산수유로 유명한 전남 구례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가을·겨울 등 일 년 내내 꽃 사태가 펼쳐진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한국압화박물관 덕분이다. 이곳에 가면 작약·수국·할미꽃·물매화·물옥잠·백리향·천리향·꽃무릇·노루귀·개망초·매발톱·미아리·안개꽃·미니장미·애



**'누름꽃'의 아름다움에
절로 감탄**

한국압화박물관에 들어서면 '세계 유일의 압화 전문박물관'이라는 문구와 압화로 꾸민 천장 조명이 눈에 들어온다. 1층 전시실에는 지난해 제16회 대한민국 압화대전 수상작이 걸려 있다. 일본·대만·중국·러시아·우크라이나·리투아니아 등 외국 작가의 작품을 통해 국별 작품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다. 자연 풍경을 유화처럼 표현한 대만 진페이산의 '동산강', 나뭇잎과 나무껍질로 해안을 절주하는 야생마를 표현한 리투아니아 타트야나 마자제타의 '말', 오래된 성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표현한 일본 모리타 카즈미의 '고성', 동물을 꽃으로 표현한 중국 리징징의 '판다' 등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하는 압화 작품들이 가득하다.



멀리서 보면 꽃비가 내리는 봄의 풍경을 그린 수채화처럼 보이던 작품이 가까이 다가가면 꽃으로 그린 그림이고, 자작나무 껍질과 낙엽으로 거칠게 표현한 추상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차정희의 '봄이 오는 들녘'에는 왓소니아, 넉줄고사리·당근꽃·접골목꽃·아디안텀, 이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물감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색감이 빼어나고, 꽃과 잎이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로 살아 숨 쉰다. 압화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채취부터 건조, 제작까지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풍경·정물·인물 추상의 회화 작품의 경우 방습제를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



기사과꽃·배롱나무꽃 등을 눌러서 말린 압화(押花·Press Flower)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꽃을 눌러 만든 작품들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감탄사를 자아낼 만큼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리말로 '꽃누름' 또는 '누름꽃'이라 부르는 압화는 꽃과 열매·잎·줄기를 눌러 건조한 뒤 이를 활용한 조형예술로,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정물화에서부터 풍경화·인물화·추상화 등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가구·장신구 등의 공예에도 응용된다.

압화의 역사는 1521년 이탈리아의 식물학자 키네가 300여 종의 식물표본을 제작하면서 시작돼 19세기 이후 압화 예술로 발전했다. 한국 압화는 선조들이 문 창호지에 꽃이나 나뭇잎을 붙여 집안에서 자연을 감상하는 풍류의 멋을 즐겼지만, 압화 예술은 1950년대 중반 플라워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야생화 생태특구'인 구례군은 2000년 야생화를 연구할 목적으로 압화 표본을 만들었고, 200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압화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3월 20일까지 공모작(압화와 보존화)을 접수한다. 1, 2차 심사를 거쳐 4월 19일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박노진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한국압화박물관장)은 "대한민국압화대전을 통해 압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압화 메카로서의 자리매



김을 하고 있다"면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관한 한국압화박물관에는 대한민국압화대전 당해 연도 국내외 수상작, 압화를 이용한 생활소품, 압화 도구, 식물표본이 전시돼 있다"고 말한다.

매년 3만여 명이 찾는 한국압화박물관은 전시실을 비롯해 수장고, 체험교육관, 기념품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누름꽃'으로 불리는 압화는 정물화·풍경화·인물화·추상화 등 회화 작품이나 가구, 액세서리, 인테리어에 응용된다.





압화 체험교육관에서는 컵 받침, 열쇠고리, 손거울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압화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게 코팅처리 해서 모양이나 색이 변하는 것을 막는다.

전시실 중앙 벽면에 별도로 걸려 있는 제16회 종합대상 수상작인 '작약 꽃향기 가득한'이 발 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림 속 바구니에 담긴 연보라색 꽃은 말린 작약 잎을 층층이 쌓아 만들었고, 새 두 마리가 든 새장은 나무껍질을 잘라 붙여 실제와 같은 색감과 질감을 표현했다.

어떤 꽃이 쓰였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그만인데 마치 숨은그림찾기와 같다.

박남선 작가는 창작의도에서 "작약 꽃은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를 지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꽃이다. 탐스럽게 피어 있는 작약 꽃을 보고 있노라면 화사함 속의 아련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느껴진다. 작약 특유의 화려함과 탐스러움을 표현했다"고 밝혔고, 심사위원들은 "압화라는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리고,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의 처리 등 조형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말린 꽃과 잎, 줄기로 조형성·예술성 표현
회화와 함께 누름꽃을 넣고 평평한 유리를 얹은

테이블, 누름꽃이 담긴 장신구, 누름꽃을 붙인 가구 등 공예작품도 압화로 표현되기도 한다. 솔채·한라바베나의 오묘한 색감은 꽃향기에 취해 나비가 날아들 듯 '나빌레라' 압화장으로, 깽이풀꽃과 앞산자고·꿩의 비람꽃·금낭화·싸리꽃·산수국·왕제비꽃·양지꽃·미니도라지꽃 등의 화려한 꽃들은 블라인드로 재탄생했다.

또 유리 접착법을 활용한 탁자 '차 한 잔의 여유'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작약·물매화·취당굴·크리스마스роз 등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한지와 애기사과꽃·설유화·불두화 등의 누름꽃으로 만든 한복 인형, 도자기와 팔배꽃·수국·당근꽃·안개꽃 등의 누름꽃을 접목한 꽃수저 받침은 갖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생활을 오랫동안 시들지 않도록 작품화한 보존화 전시 공간에선 구도와 색감의 처리 등 작품성과 함께 실용성에 감탄하게 된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제1회 '9월의 향수'부터 제15회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압화대전 역대 종합대상 수상작과 마주한다. 제7회 종합대상을 받은 배선아 작가의

작품 '화조화'는 꽃과 새를 주제로 한 민화병풍이다. 누름꽃의 멋을 살린 병풍은 매화·작약·동백·갈대·애기나무·산당화·대나무·맨드라미·으아리·구절초·이끼·담뱃잎 등을 눌러서 말린 후 까치, 매, 모란, 연꽃, 수선화,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 등을 표현했다. 들과 산에서 무심코 스쳐버렸던 야생화, 이름을 몰랐던 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전기식압화기, 수동식압화기 등 압화 기구, 명함케이스·노리개·비녀 뒤꽂이·손톱깎이·머그잔·손거울·스탠드·큐빅 목걸이 등 압화를 활용한 생활소품과 액세서리, 지리산에서 채취한 야생화 표본 등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국압화박물관 옆 체험교육관에서는 컵 받침, 열쇠고리, 손거울, 티슈 통, 타일 액자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야생화 힐링 정원, 야생화 유전자원 온실, 잡자리 생태관 등이 조성되어 재미있는 볼거리도 제공한다. ●

INFORMATION

[관람 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휴관)

[휴관]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관람]
성인 2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
☎ 061-781-7117



금낭화·싸리꽃·산수국·왕제비꽃·양지꽃 등을 눌러 만든 블라인드는 거실 등 집안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게 한다.

